

(인도자용)

우리가 선택한 삶 “성령의 열매” 3

“기쁨을 선택하기”

마음열기

아래 내용들에 대해 당신을 점검해 보세요.

(큰 숫자로 갈수록 많은 것입니다.)

 나는 먹고 살고 입기에 충분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나는 나의 외모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현재 나의 지위에 만족한다.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나는 충분히 건강하다.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나는 말을 정말 잘한다.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위의 결과에 대해 서로 나누어 보세요. 가장 높거나 낮게 나온 결과는 어떤 것인가요?

 아래 글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소개한 행복의 조건입니다. 위에서 나온 결과와 아래 글과 비교하여 당신의 행복의 상태를 체크해 보세요.

- 먹고 살고 입기에 조금은 부족한 재산
-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엔 약간 부족한 외모
- 자신이 생각하는 것의 반 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
- 남과 겨루어 한사람에겐 이겨도 두 사람에겐 질 정도의 체력

- 연설을 했을 때 듣는 사람의 반 정도만 박수를 치는 말씀씨



나눔

1. 아래 성경을 읽고 다음 질문들에 대해 서로 나누어 보세요.

로마서 5:1-2

1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2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또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합니다.

로마서 12:12

12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십시오. 환난 속에서도 잘 참으십시오.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로마서 5:3-4

3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당하더라도 즐거워합니다. 그것은 환난이 인내를 낳고,

4 또 인내는 연단된 인품을 낳고, 연단된 인품은 소망을 낳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2

2 우리 믿음의 시작이며, 또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모든 부끄러움을 참아 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기쁨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 보좌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로마서 5:11

11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 빌립보서 4:4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야기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는 의미는 어떤 것일지 서로 나누어 보세요.

📖 성경은 우리가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빌립보서 4:4의 항상 기뻐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서로 나누어 보세요.

로마서 5:1-2, 로마서 12:12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 5:3-4 히브리서 12:2	환난을 당해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상황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환난 때문에 즐거운 것도, 환난을 즐긴다는 이야기도 아니다. 바울은 환난 중에서 기뻐한다고 소개한다. 환난과 고난이 최종 결론이 아니다. 인내 : 중압감을 견딜 수 있는 능력 연단 : 믿을 만한 것으로 입증된 것 소망 :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
로마서 5:11	기쁨은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2. 아래 글을 읽고 서로 나누어 주세요.

우리는 흔히 '행복하다'고 말할 때, 모든 일이 우리의 기대대로 잘 풀릴 때 느끼는 감정을 떠올린다. 실제로 '행복(happiness)'이라는 단어는 '행운'이나 '환경'을 뜻하는 고대 영어 단어 hap에서 유래했다. 즉, 행복은 외부 환경이나 사건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감정인 셈이다. 예를 들어, "오늘 모든 일이 잘 풀렸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라는 표현은 행복이 환경에 의존함을 보여준다.

반면, '기쁨'은 다르다. 기쁨은 외부 환경과 무관하게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이다. 기쁨은 외부 사건이 내 의도와 맞아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느낄 수 있으며, 우리의 내적 태도와 선택에 의해 발생한다.

따라서 행복과 기쁨의 핵심적인 차이는 명확하다. 행복은 외부 조건에 좌우되지만, 기쁨은 외부 조건에 개의치 않고 스스로 느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의미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은, 세상의 일이 항상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내면에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삶의 태도를 가리킨다.

결국, 진정한 기쁨은 환경에 의존하지 않는 내적 경험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최근에 느낀 '행복'과 '기쁨'을 각각 떠올려 보고, 그 차이를 설명해 보세요.

 외부 상황과 상관없이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을 느낀 경험이 있다면, 무엇이 그 감정을 만들어냈나요?

 외부 환경의 변화가 아닌 내적 태도로 인해 기뻐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실생활에서 쉽지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신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쁨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까요?



적용과 결단

누구나 행복해 지기를 원합니다. 삶에서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인지를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행복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기쁨으로 연관 지어 생각합니다. 행복하면 기쁘다고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보다 그렇지 않은 때가 훨씬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행복하지 않더라도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해야 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쁨을 얻기 힘든 까닭은 성경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는 훈련 자체가 기쁨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을 위해 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기쁨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 기쁨을 위해 감사의 태도를 개발하고, 우리의 재물과 시간과 복음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기쁨이 찾아온다고 이야기 합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위의 내용들에 대해 당신이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보세요.

한 주 동안 직장에서 가정에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

한 주 동안 직장에서 가정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일들에 대해:

한 주 동안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섬길 수 있는 일들에 대해 :

한 주 동안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대해 :



기도